흡연방지교육

-금연운동과 함께 흡연방지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김상철 (동인병리과의원장)

1999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 약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들의 평균 흡연율은 6.2%, 여자 중학생들의 평균 흡연율은 3.1%,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흡연율은 32.6%, 여자 고등학생들의 평균 흡연율은 7.5%이었다.

1998년 7월 당시의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4,643만 여명으로 이중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6%인 1,186만 5,000명이며 이들중 45.5%인 539만 6,400명이 10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인구는 433만 8,300명이었는데, 중학생이 201만 1,400명, 고등학생이 232만 6,80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중 남학생들만 따져보아도, 중학생들의 6.2% 고등학생들의 32.6%가 흡연 인구라면 우리는 중학교 저학년(신입생)으로부터 유치원생들까지를 「흡연방지교육」에 참여시켜야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급작스러운 흡연 인구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보건기구는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선포하고 1990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청소년과 어린이를 담배로부터 구하자(Childhood and Youth Without Tobacco)」로 정하여 청소년 흡연문제를 다루었지만 그후에 청소년들의 흡연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1998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배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Growing up Without Tobacco)」으로 다시 선정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청소년들의 흡연이 위험수위를 치닫고 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서 연기를 없애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1988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창립되면서 사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금연 운동을 전개하였고 필자도 창립초기부터 지금까지 협의회 일원으로 일해오면서 주로 「흡연의 해독」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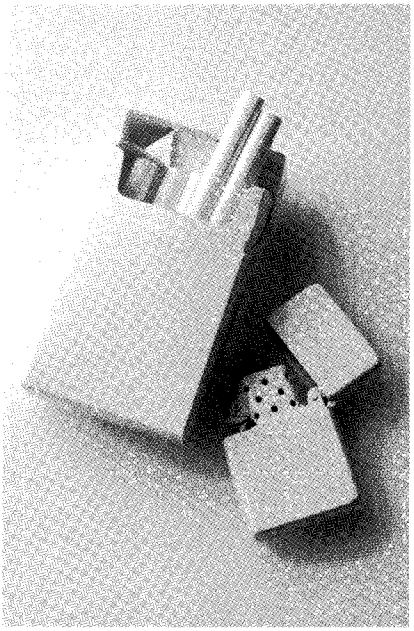
「흡연의 해독」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는

대상은 「금연교육지도자」들로부터 초등학교생들까지 다양하였기 때문에 수강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강의 내용과 시청각 교재의 활용이 다를 수 밖에 없었는데 각 대상에 따른 교재의 선정에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먼저 금연교육 지도자 교육 과정에 참여하였던 분들은 대부분이 초·중·고교의 보건 담당교사로서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취득한 자격과 경험에 걸맞게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을 바탕으로 담배연기의 주요성분들과 각 장기의 유해성을 정리함으로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으나 적절한 자료의 부족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강의는 몇 가지로 구분되어 시행하였는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본 경험은 없었고, 선정된 학년을 대상으로 강의 하거나 흡연자들만 선택적으로 모아서 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상 학년 전체를 한 장소에 집합시켜 강의하면 다수에 의한 소란스러움 때문에 강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았고, 각반 교실에서의 TV 강의도 수강생들의 반응을 알 수 없어서 역시 강의 내용의 전달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흡연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시간 소모가 많아서 한 두 시간 내에 확실한 금연 의지를 심어 주기에 역부족이었다.



반면 비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강의는 기대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서도 역시 시간이 모자르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초·중·고등 학교에서의 「금연교육」은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는것 보다 개인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할 것과 이들에게 제공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작성에 치밀함이 요구된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도 중요하기 이를 데 없지만 「흡연방지교육」에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